

## 중·장년층 기혼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거양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welling Style by Lifestyle of Middle-aged Married Women

윤정숙\*

Yoon, Chung-Sook

박지민\*\*

Park, Ji-Min

#### Abstract

Recently, house demander's needs has diversified in the increasingly by the drastic change in the social environment, changes in family structure and population, the growing interest of living environment. So in the future, housing supply to respond to a variety of housing needs is absolutely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festyle types of middle-aged married women with high purchasing power in the current housing market and propose the dwelling style by housing awareness and needs analysis. To collect the data, LOV survey method was used for 528 residents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The data analysis used SPSS PC 14.0 to find the frequency, chi-square, factor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lifestyle was segmented into four groups such as Conservative goal-achieving lifestyle, Individual self-developing lifestyle, Positive self-trusting lifestyle, Outgoing trend-seeking lifestyle. Second, largely the dwelling style according to lifestyle types was divided into living room-kids room type and living room-kitchen type. Third, there were different preferences on the each type of housing space and the  $\alpha$ -space by different clusters.

Keywords : Middle-aged Married Women, Lifestyle, Dwelling Style

주요어 : 중장년층, 라이프스타일, 주거양식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으면서<sup>1)</sup> 우리나라 주택정책 중 가장 시급한 과제인 절대적 주택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의 미분양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택 미분양의 증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실질적인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이 아닌 주택 물량에만 치우친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인 특성이 좌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인구·가족구조의 변화,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주택 수요자의 요구가 점차 다양화되고 미래 주거요구에 대한 주택공급의 차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주택 수요자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화적 요소를 포함하는 주거환경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생애주기, 변화된 가치관과 관습, 미의식, 커뮤니티 등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동기적 특성이나 가치체계 등 심리묘사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변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으며(윤정숙, 김한나, 2006), 전체 소비자를 개별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각 집단이 가지는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알 때 그들의 구매행동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박성연, 최신애, 1999). 따라서 현재 주택시장의 절대적인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중·장년층<sup>2)</sup> 기혼여성의 수요자 계층을 중심으로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고 선호하는 주거의식과 주거요구에 따른 주거양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주택시장의 절대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알아본다. 둘째, 중·장년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학술박사  
\*\*정회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과정

이 논문은 2009년 연세대학교 논문지원연구로 수행되었음(2009-1-0108).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1) 200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9.9%이다.  
2) 박성정 외(2005) 논문에 의하면, 중·장년층의 연령 범위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어 연령구분을 명확히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여성의 삶의 주기와 특성은 남성과 다르므로 30대에서 50대를 중장년기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써 만30세 이상 만60세 미만을 중장년층으로 정의하였다.

거 공간에 대한 의식과 주거요구를 통해 라이프스타일별 주거양식을 제시한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중·장년층 기혼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고 일반적인 주거요구사항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편의표집 방법으로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을 한정하고, 연령은 할당표집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9월 1일에서 30일까지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 후 방문하여 회수된 548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20부를 제외한 52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조사내용

설문 내용은 라이프스타일 측정문항과 희망하는 주거요구 사항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측정은 LOV항목을 사용한 선행논문(김태환, 2009. 김미실, 2008. 윤정숙 외, 2007. 김동기, 2005. 심성욱 외, 2003)을 참고로 하여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총 4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주거양식<sup>3)</sup>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두 가지 하위차원인 주거의식<sup>4)</sup>과 주거요구<sup>5)</sup>로 나뉘어 관련 문항을 구성하였다. 첫째는 주거 공간 내에서의 주거의식과 관련된 문항으로 제일 중요한 공간, 좋은 위치에 배치되기를 희망하는 공간, 규모, 독립성을 묻는 항목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둘째는 주택의 선호하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주거요구로 주택의 유형, 규모, 욕조/욕실 형태, 가사작업공간의 형태와 위치, LDK유형, 주거 내에서 가장 필요한 공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SPSS WIN14.0을 이용해 조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라이프스타일별 주거요구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분석을 사용하였다.

3) 주거양식이라는 용어는 ‘주양식’, ‘생활양식’, ‘주거생활양식’, ‘주거생활양식’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며, 같은 용어의 해석에도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이미연, 2003). 본 논문에서는 주거의 가치 기준을 나타내는 주거공간 의식과 선호하는 물리적 형태의 주거요구, 두 가지 하위차원 측면으로 제한하여 주거양식을 분석하였다.

4) 주거의식이란 특정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주거 및 주택에 관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잠재된 잠재적·정신적인 기반을 의미하고 주거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거의사결정 및 주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의미한다(강지혜, 2008).

5) 주거요구란 거주자들이 주택에 대해서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단, 물리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선호와 희망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결핍인지로 인해 개선의 의지가 있고 개선을 능동적으로 유발하는 필요의 개념인 요구의 의미를 포함한다(강지혜, 2008).

## II. 이론적 배경

### 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명칭을 소비자 행동 연구에 처음 도입한 연구자 레이저(Lazer, 1963)는 라이프스타일을 “전체 사회 속에서 특정 문화나 집단을 다른 문화나 집단과 뚜렷이 구분 지을 수 있는 문화, 상징,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 등의 총화”라고 규정하였다(심성욱, 2003에서 재인용).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분석은 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기준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행동을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며 소비자들의 생활상 변화 및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소비행동이나 구매행동의 변화 등 사회적인 동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조전근 외, 2001).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측정은 RVS(Rokeach Value Survey, 1973), AIO(Activities Interests Opinions, 1974), VALS(Values and Life Style, Mitchell, 1983), LOV(List of Values, Kahle, 1983)접근방법 등을 사용한다. 이 가운데 LOV측정방법은 인구통계변수와 함께 측정할 경우 그 약점이 보완되어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김동기, 2005) 가치체계에 의한 분류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LOV접근방법으로 진행된 김태환(2009), 김미실(2008), 윤정숙(2007), 김동기(2005), 심성욱(2003)의 연구를 토대로 각각의 측정항목을 비교분석하여 재구성하였다.

### 2. 시대별 주거양식의 변화

주거양식이란 가족을 최소 단위로 하여 주거 내에서 행해지는 주생활 특성과 주택의 물리적인 특성인 주거공간의 형태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일정한 모양과 패턴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거양식은 동일한 전체 사회-문화권 속에서도 특정한 시기, 특정한 지역, 사회계층, 거주자들의 주생활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유영희, 1996). 우리나라의 주거는 전통적인 형태를 지속해오다가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최근까지 사회, 경제, 제도, 정책, 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새로운 주거양식의 틀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은 아파트의 공간구성과 기능 변화의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물리적 측면의 주거양식 흐름을 살펴보면,<sup>6)</sup>

첫째, 거실은 1960년대 이후 현관에서 바로 연결되어 주호의 중심에 있다가 1970년대 이후 전면으로 위치가 변하면서 1980년대 절정을 이루다 1990년대 이후 감소하였다. 그 이후 복도, 홀, 주방을 통해 연결되어 주호의 전면에 위치한 사례가 2000년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6) 김수정(2006). 공공아파트의 공간구성과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참조. 김수현(1999). 아파트 단위평면의 유형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참조.

다. 반면 전체 면적에 대한 거실의 면적 비율은 전용면적에 따라 변화하며 시계열적으로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시대별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식사행위의 빈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둘째, 부엌과 식당의 경우 1960~1990년대에는 안방의 후면에 위치한 L-K형이 199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고, LDK형은 1970~2000년대에 나타났고 1980년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부엌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거실 후면에 위치한 L-DK형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능에 있어서는 취사와 식사 위주의 공간에서 가족 단란, 접객, 식사, 취사, 휴식·여가, 세탁·옷 손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셋째, 욕실은 1960~1970년대에는 현관과 가까운 후면에, 1970~1980년대에는 부엌과 가까운 후면 안쪽에, 1980~1990년대는 침실과 침실 사이에 위치하였고, 1990년도를 기점으로 부부욕실이 추가되어 전용면적 70 m<sup>2</sup> 이상에서는 욕실이 2개인 유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넷째, 안방의 경우 시대별 획일적인 면적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용면적 95 m<sup>2</sup> 미만에서는 거실보다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1960년대에 취침, 휴식, 여가, 가족단란, 식사, 접객 등의 다양한 생활행위에서 2000년대 이후에는 취침과 휴식행위로 대폭 축소되었다.

시대별 우리나라 아파트 공간구성은 대규모 단위평면보다는 중·소규모 단위평면에서의 변화가 더 많았다. 같은 면적 내에서 침실수와 욕실수의 증가, 개방된 공용 공간 계획의 변화는 중·소형 아파트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공간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공간의 기능면에 있어서도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분리와 공적공간 기능의 다양화를 보여주고 있다.

### III.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령, 학력, 세대구성, 직업, 가족월평균소득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주택유형, 주택규모, 소유형태, 거주기간인 주택특성에 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528명 중 30대가 39.4%, 40대가 36.0%, 50대가 24.6%로 30~40대의 비율이 높았고, 대상자의 75.5%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의 세대구성은 부부를 중심으로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2세대를 구성 비율이 85.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비율은 54.2%, 45.8%로 전업주부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며, 가족의 월평균소득은 650만원 이상이 31.4%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350~450만원 미만이 22.3%, 450~550만원 미만이 18.8%로 뒤를 이었다.

표 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

일반적 특성		N	%
연령	30대	208	39.4
	40대	190	36.0
	50대	130	24.6
	소계	528	100.0
학력	고졸졸업	125	23.8
	대학졸업	318	60.6
	대학원 졸업	78	14.9
	기타	4	0.8
소계	525	100.0	
세대구성	부부	39	7.4
	부부+자녀	452	85.6
	부모+부부+자녀	34	6.4
	기타	3	0.6
소계	528	100.0	
직업	전문직	53	10.0
	사무직	57	10.8
	자영업	66	12.5
	경영,관리직	11	2.1
	전업주부	286	54.2
	기타 <sup>7)</sup>	55	10.4
소계	528	100.0	
가족 월평균 소득	350만원 미만	84	15.9
	350~450만원 미만	118	22.3
	450~550만원 미만	99	18.8
	550~650만원 미만	61	11.6
	650만원 이상	166	31.4
소계	528	100.0	
주택유형	아파트	422	79.9
	주상복합아파트	20	3.8
	단독주택	44	8.3
	다세대/다가구주택	38	7.2
	기타	4	0.8
소계	528	100.0	
주택규모	20평형대 이하	115	21.8
	30평형대	243	46.1
	40평형대	89	16.9
	50평형대 이상	80	15.2
	소계	527	100.0
소유형태	자가	375	71.0
	타가	153	29.0
	소계	528	100.0
거주기간	1년 미만	59	11.2
	1~5년미만	267	50.7
	5~10년 미만	144	27.3
	10년 이상	57	10.8
	소계	527	100.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은 아파트가 7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택규모는 30평형대 46.1%, 40

7) 기능직, 생산업 종사자, 비정규직근로자 포함.

평형대 16.9%, 50평형대 이상이 15.2%로 중·대형에 거주하는 비율이 78.2%로 나타났다. 소유 형태는 자가의 비율이 71.0%로 높았으며, 거주기간은 1~5년 미만이 50.7%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라이프스타일 유형화

1) 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해 LOV 항목을 구성하고 있는 40개의 초기문항 가운데 공통성이 4.0 이하로 낮은 요인들, 즉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항목들을 제외한 32문항을 가지고 Verimax 직각회전에 의한 주성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KMO값

이 0.796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꽤 좋은 편이며,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와 요인분석의 적합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인분석의 초기고유값(eigenvalue) 1.0 이상, 요인적재량 0.4 이상, 각 문항간의 신뢰도 0.5 이상을 기준으로 문항을 선택하여 7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각 요인들은 구성요소와 특성에 따라 사교중심 요인, 책임중심 요인, 여가지향 요인, 유행민감 요인, 개성중시 요인, 성공지향 요인, 자아신뢰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의 특징을 표현하는 어휘는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명명하였다<표 2>.

2) 라이프스타일 유형화를 위한 요인별 군집분석

본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인 라이프스타일의 유형화를

표 2. 라이프스타일 항목의 회전된 성분행렬

하위항목	요인적재량							신뢰도 (Alpha)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사교중시	책임중시	여가지향	유행민감	개성중시	성공지향	자아신뢰	
1. 사교성이 많다	.791							.768
2. 사람과 잘 어울리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767							
3. 각종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	.701							
4.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눈다.	.674							
5. 나의 인격을 믿는다.		.665						.697
6.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도록 노력한다.		.662						
7. 맡은 일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성향이 있다.		.656						
8.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협과 양보를 잘하는 편이다.		.620						
9.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한 약속을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		.561						
10. 한 달에 몇 번 정도 스포츠나 취미 활동을 한다.			.843					.718
11. 좋아하는 스포츠나 취미가 있다.			.759					
12. 여가 선용을 위해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			.635					
13.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겨야 한다.			.454					
14. 스포츠나 대중가요 등에 대해 열광적이다.			.450					.624
15. 남보다 먼저 신제품을 사려고 한다.				.736				
16. 가구나 실내 장식은 실용성보다는 디자인이나 색상이 더 중요하다.				.692				
17. 새로운 패션이나 유행은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다.				.614				
18. 글을 직접 쓰거나 뭔가를 만들기를 좋아한다.				.470				
19. 항상 새롭게 변화하는 생활을 원한다.				.388				.589
20. 주위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좋다.					.833			
21.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개성 있는 삶을 살고 싶다.					.701			
22.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더라도 마음 편하게 즐겁게 살고 싶다.					.439			.536
23.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770		
24. 노력해서 출세해야만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735		
25. 출세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고싶다(역코딩).						.511		.514
26. 나의 장래가 밝다고 확신한다.							.794	
27.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566	
공통변량(요인별 설명력)	10.4%	9.7%	9.6%	8.9%	7.7%	7.5%	7.4%	KMO=0.796, Sig.=0.000
누적변량(전체 설명력)	10.4%	20.1%	29.7%	38.6%	46.3%	53.8%	61.2%	
고유값(Eigenvalue)	2.7	2.5	2.5	2.2	1.8	1.8	1.7	
KMO 검증								

-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 회전방법: 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Varimax)
- a: 8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음

표 3. 군집분석 결과

군집명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F-값 (Sig)
군집수	127 (24.1%)	127 (24.1%)	103 (19.5%)	171 (32.4%)	
요인명					
사교중시	.30794	-.89018	-.43821	.69637	120.726 (0.000)
책임중시	.61594	.44276	-.75941	-.32886	70.127 (0.000)
여가지향	-.04826	.24400	-.38836	.08855	8.601 (0.000)
유행민감	-.04803	-.30212	.09502	.20282	6.836 (0.000)
개성중시	.28217	.25887	-.91843	.15138	45.771 (0.000)
성공지향	1.04376	-.64245	.32046	-.49108	148.986 (0.000)
자아신뢰	.21309	.09688	.24467	-.37758	13.382 (0.000)

위해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7개의 요인을 근거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 가운데 K-평균 군집 분석<sup>8)</sup>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하게 군집의 수를 정하여 분석한 결과 군집의 분포 정도가 안정적이고 균형을 고려하여 군집수를 4개로 정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군집별 유의확률이 모두 0.00으로 신뢰도가 99%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분류된 4개 군집의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보면 군집1은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고 출세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 반면, 여가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보수적 성공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의 경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사교적 성향보다는 개성있는 자기 방식대로의 개인적인 삶을 중시하며, 여가 선용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스포츠나 취미 활동에도 적극적이. 자신의 인격을 믿고 책임감이 강하나 출세를 위한 성공지향성은 낮아 ‘개인중심적 자기계발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의 경우 자아신뢰도가 높고 모범적이고 규범을 중시하기보다는 출세를 위한 성공지향성이 높고 경제적인 삶의 윤택함을 선호하고 개성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낮아 ‘적극적 자아신뢰형’으로 명명하였고, 군집4의 경우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사교적인 성향이 강하며 유행에 민감하고 출세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생활을 원하는 반면 자아신뢰감과 책임감은 낮아 ‘외향적 유행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3)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일반적 특성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변인간의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전 연령, 학력, 가족월평균소득, 주택

8) 비계층적 분석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K-평균 군집 분석으로 군집의 수를 연구자가 지정해야 하는 점에서 계층분석과 다르고, 이는 변수를 군집하기보다는 응답자를 군집화하는데 많이 사용한다(송지준, 2009).

표 4.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일반적 특성

라이프스타일 유형	보수적 성공 지향형	개인중심적 자기 계발형	적극적 자아 신뢰형	외향적 유행 추구형	
연령	30대	46(36.2)	51(40.2)	39(37.9)	72(42.1)
	40대	48(37.8)	51(40.2)	37(35.9)	54(31.6)
	50대	33(26.0)	25(19.6)	27(26.2)	45(26.3)
	소계	127(100)	127(100)	103(100)	171(100)
	$\chi^2=4.035$ Sig=0.672				
학력	고교졸업	44(34.6)	24(19.0)	20(19.4)	41(24.3)
	대학졸업	63(49.6)	83(65.9)	70(68.0)	102(60.4)
	대학원졸업	20(15.7)	19(15.1)	13(12.6)	26(15.4)
	소계	127(100)	126(100)	103(100)	169(100)
	$\chi^2=12.416$ Sig=0.053				
직업	전문직	13(10.2)	14(11.0)	8(7.8)	18(10.5)
	사무직	13(10.2)	13(10.2)	14(13.6)	17(9.9)
	자영업	24(18.9)	11(16.7)	8(7.8)	23(13.5)
	경영, 관리직	2(1.6)	2(1.6)	4(3.9)	3(1.8)
	전업주부	53(41.7)	83(65.4)	59(57.3)	91(53.2)
	기타	22(17.3)	4(3.1)	10(9.7)	19(11.1)
	소계	127(100.0)	127(100.0)	103(100.0)	171(100.0)
	$\chi^2=30.419^*$ Sig=0.010				
가족월평균소득	~350만원	21(16.5)	22(17.3)	14(13.6)	27(15.8)
	350~450만원	30(23.6)	29(22.8)	21(20.4)	38(22.2)
	450~550만원	22(17.3)	24(18.9)	20(19.4)	33(19.3)
	550~650만원	16(12.6)	15(11.8)	16(15.5)	14(8.2)
	650만원~	38(29.9)	37(29.1)	32(31.1)	59(34.5)
	소계	127(100)	127(100)	103(100)	171(100)
$\chi^2=5.055$ Sig=0.956					
주택유형	아파트*	100(78.7)	112(88.2)	86(83.5)	144(84.2)
	단독주택	15(11.8)	7(5.5)	9(8.7)	13(7.6)
	기타	12(9.4)	8(6.3)	8(7.8)	14(8.2)
	소계	127(100)	127(100)	103(100)	171(100)
$\chi^2=4.681$ Sig=0.585					
주택규모	99 미만	29(22.8)	26(20.5)	19(18.4)	41(24.1)
	99~132	64(50.4)	64(50.4)	43(41.7)	72(42.4)
	132~165	20(15.7)	19(15.0)	19(18.4)	31(18.2)
	165 이상	14(11.0)	18(14.2)	22(21.4)	26(15.3)
	소계	127(100)	127(100)	103(100)	170(100)
$\chi^2=7.901$ Sig=0.544					
주택소유	자가	90(70.9)	92(72.4)	73(70.9)	120(70.2)
	타가	37(29.1)	35(27.6)	30(29.1)	51(29.8)
	소계	127(100)	127(100)	103(100)	171(100)
$\chi^2=1.186$ Sig=0.980					

\* 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유형, 주택규모, 주택소유에 모든 라이프스타일이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직업의 배경변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수적 성공지향형’의 경우 취업주부의 비율이 48.8%, 기능직·생산업종사자·비정규직근로자까지 포함한다면 57.2%로 다른 유형(개인중심적 자기계발형 39.9%, 적극적 자아신뢰형 42.7%, 외향적 유행추구형 47.8%)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라이프스타일별 취업주부의 직종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수적 성공지향형’은 자영업(18.9%), 기능직·생산업종사자·비정규직근로자(17.3%), ‘개인중심적 자기개발형’은 사무직(10.2%), 자영업(16.7%), ‘적극적 자아신뢰형’은 사무직(13.6%), 기능직·생산업종사자·비정규직근로자(9.7%), ‘외향적 유행추구형’은 자영업(13.5%), 기능직·생산업종사자·비정규직근로자(11.1%)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개인중심적 자기개발형’의 경우는 전업주부가 6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4>.

3.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거의식과 주거요구

1)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공간에 대한 주거의식

공간에 대한 주거가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주거의식을 알아보았다. 하위항목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간, 주거공간의 규모 순, 남향에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공간 순, 공간의 독립성을 희망하는 순,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들 항목간의 차이점을 알아내고자 카이검증을 통해 변수들 간의 독립성과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들은 1순위에서 공간의 중요성, 위치, 규모 항목에서는 ‘거실’을, 독립성의 항목에서는 ‘안방’으로 라이프스타일별 네 가지 변인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지만 2, 3순위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5>. ‘보수적 성공지향형’은 부엌이 중요한 공간이지만 위치와 규모에 있어서는 자녀실을, 서재와 부부욕실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중심적 자기개발형’은 중요성과 위치에 있어서는 자녀실을, 규모에 있어서는 부엌을 중시하고 있었다. ‘적극적 자아신뢰형’은 중요성, 위치, 규모, 독립성 네 가지 모든 변인에서 자녀실을 우

표 5. 라이프스타일별 주거의식 n=528, (%)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중요성	군집1	거실(54.3)	부엌(29.1)	자녀실(23.6)
	군집2	거실(59.1)	자녀실(24.4) 부엌(24.4)	자녀실(23.6)
	군집3	거실(62.1)	자녀실(24.5)	자녀실(24.8)
	군집4	거실(63.2)	부엌(26.9)	부엌(21.9)
위치	군집1	거실(50.4)	자녀실(34.9)	부엌(21.4)
	군집2	거실(47.2)	자녀실(29.9)	부엌(22.0)
	군집3	거실(55.3)	자녀실(36.9)	안방(29.7)
	군집4	거실(57.9)	자녀실(24.0)	안방(35.2)
규모	군집1	거실(56.7)	자녀실(26.2)	안방(19.2)
	군집2	거실(54.3)	부엌(20.5)	부엌(21.4)
	군집3	거실(58.3)	자녀실(31.1)	자녀실(22.8)
	군집4	거실(55.6)	부엌(25.1)	자녀실(20.6)
독립성	군집1	안방(37.8)	서재(21.4)	부부욕실(18.3)
	군집2	안방(34.9)	서재(25.0)	부부욕실(17.2)
	군집3	안방(37.6)	자녀실(20.4)	서재(15.3)
	군집4	안방(30.2)	안방(16.8) 서재(16.8) 부부욕실(16.8)	서재(17.5)

표 6. 라이프스타일별 선호하는 주거요구

라이프스타일유형		보수적 성공 지향형	개인 중심적 자기 개발형	적극적 자아 신뢰형	외향적 유행 추구형
주택 유형	아파트	74(58.3)	69(54.3)	61(59.2)	85(49.7)
	주상복합아파트	8(6.3)	7(5.5)	13(12.6)	13(7.6)
	단독주택	38(29.9)	46(36.2)	24(23.3)	60(35.1)
	다세대/다가구	1(0.8)	2(1.6)	4(3.9)	1(0.6)
	기타 <sup>9)</sup>	6(4.7)	3(2.4)	1(1.0)	12(7.0)
소계		127(100)	127(100)	103(100)	171(100)
$\chi^2=21.802$ Sig=0.040*					
주택 규모	전용<60 m <sup>2</sup>	2(1.6)	2(1.6)	2(2.0)	4(2.3)
	전용60~85 m <sup>2</sup>	12(9.4)	11(8.7)	8(7.8)	17(9.9)
	전용85~102 m <sup>2</sup>	44(34.6)	44(34.6)	27(26.5)	56(32.7)
	전용102~132 m <sup>2</sup>	40(31.5)	40(31.5)	31(30.4)	50(29.2)
	전용132 m <sup>2</sup> ~	29(22.8)	30(23.6)	34(33.3)	44(25.7)
소계		127(100)	127(100)	102(100)	171(100)
$\chi^2=5.229$ Sig=0.950					
욕조 형태	욕조	59(46.5)	55(43.3)	51(49.5)	81(47.4)
	샤워부스	64(50.4)	63(49.6)	46(44.7)	76(44.4)
	기타	4(3.1)	9(7.1)	6(5.8)	14(8.2)
	소계		125(100)	127(100)	103(100)
$\chi^2=4.504$ Sig=0.609					
욕실 형태	세면대+변기+욕조	14(11.0)	19(15.0)	21(20.4)	21(12.3)
	세면대변기+욕조	7(5.5)	13(10.2)	14(13.6)	17(9.9)
	변기/세면대+욕조	57(44.9)	61(48.0)	43(41.7)	67(39.2)
	세면대변기/욕조	46(36.2)	29(22.8)	23(22.3)	61(35.7)
	기타 <sup>10)</sup>	3(2.4)	5(3.9)	2(1.9)	5(2.9)
소계		127(100)	127(100)	103(100)	171(100)
$\chi^2=18.174$ Sig=0.111					
가사 작업 공간	통합형	77(61.6)	82(64.6)	61(59.2)	100(58.5)
	분리형	46(36.8)	45(35.4)	40(38.8)	65(38.0)
	기타	2(1.6)	-	2(2.0)	6(3.5)
소계		125(100)	127(100)	103(100)	171(100)
$\chi^2=5.518$ Sig=0.479					
가사 작업 공간 위치	부엌	17(13.4)	20(15.7)	25(24.3)	35(20.5)
	뒷 베란다	66(52.0)	54(42.5)	51(49.5)	74(43.3)
	앞 베란다	14(11.0)	21(16.5)	12(11.7)	20(11.7)
	욕실 인접	9(7.1)	14(11.0)	9(8.7)	16(9.4)
	거실 한 쪽	20(15.7)	15(11.8)	6(5.8)	24(14.0)
기타		1(0.8)	3(2.4)	-	2(1.2)
소계		127(100)	127(100)	103(100)	171(100)
$\chi^2=17.645$ Sig=0.282					
LDK 유형	L-D-K	21(16.5)	36(28.3)	25(24.5)	33(19.3)
	LD-K	16(12.6)	9(7.1)	11(10.8)	17(9.9)
	L-DK	79(62.2)	76(59.8)	59(57.8)	105(61.4)
	LDK	10(7.9)	6(4.7)	6(5.9)	16(9.4)
	기타	1(0.8)	-	1(1.0)	-
소계		127(100)	127(100)	102(100)	171(100)
$\chi^2=12.305$ Sig=0.422					
필요 공간	서재	32(29.9)	38(40.9)	22(28.6)	31(24.2)
	취미/운동실	22(20.6)	22(23.7)	18(23.4)	38(29.7)
	A/V룸	29(27.1)	13(14.0)	8(10.4)	22(17.2)
	가사작업실	13(12.1)	3(3.2)	12(15.6)	20(15.6)
	기타 <sup>11)</sup>	11(10.3)	17(18.3)	17(22.1)	17(13.3)
소계		107(100)	93(100)	77(100)	128(100)
$\chi^2=28.801$ Sig=0.004**					

\*p<.05 \*\*p<.01

선시 하고 있었으며, ‘외향적 유행추구형’은 부엌의 중요성과 규모를 우선시 하고, 위치에서는 자녀실을, 독립성의 우선시 하는 공간이 다른 라이프스타일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모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가장 우선시 되는 주거공간 의식은 차이가 없으나 두 번째로 우선시 되는 주거공간 의식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2)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주거요구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물리적인 측면에서 선호하는 주거공간의 특성, 즉 주거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항목은 선호하는 주택유형, 주택규모, 욕조형태, 욕실형태, 가사작업공간의 유형,<sup>12)</sup> 가사작업공간 위치, LDK유형, 주거내에서 반드시 있었으면 하는 필요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주택유형, 욕실형태, 가사작업공간 유형, LDK유형은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차이가 없었으나, 주택유형에 있어서 모든 라이프스타일이 높은 비율로 아파트를 선호했으나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비율이 선행연구<sup>13)</sup>에 비해 확연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주택유형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라이프스타일과 상관없이 욕실의 형태는 번기가 분리된 2실형을, 가사작업공간은 통합형을, 부엌/식당과 거실이 분리된 L-DK유형을 선호하였다. 반면 주택규모, 욕조형태, 가사작업공간의 위치, 필요공간에 대한 요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6>.

4.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주거양식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주거공간에 대한 의식과 주거요구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네 개의 군집별 주거양식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군집1 ‘보수적 성공지향형’은 거실공간의 중요성, 위치, 규모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실에 대한 위치와 규모를 중시하고 있다. 단, 다른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달리 안방에 대한 규모를 중시하고 있으며 독립성에 대해서도 안방-서재-부부욕실 순으로 부부중심의 사적공간을 중요시하며 가사작업공간의 위치는 뒷베란다(52.0%)-거실 한쪽 공간(15.7%)을 선호하였다. 주거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서재(29.9%)-A/V룸(27.1%) 순으로 나타났으며, 욕조의 형태는 샤워부스를 선호하였다.

군집2 ‘개인중심적 자기개발형’은 거실 다음으로 자녀실과 부엌에 대한 중요도가 같다. 이는 위치에서는 자녀

실을, 규모에서는 자녀실보다는 부엌을 거실다음으로 고려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공간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보수적 성공지향형’과 같으나 필요 공간에 대해서는 서재(40.9%)-취미/운동실(23.7%)순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기개발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가사작업공간은 별도의 공간을 선호하되 그 위치는 뒷베란다(42.5%)-앞베란다(16.5%)-부엌(15.7%)순으로 다른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비해 다양한 공간에서의 가사작업유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욕조보다는 샤워부스(49.6%)를 선호하였다.

군집3 ‘적극적 자아신뢰형’은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달리 자녀실에 대한 중요성, 위치, 규모, 독립성이 거실다음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규모는 다른 라이프스타일에 비해 전용면적 132 m<sup>2</sup> 이상의 대형 주택을 선호(33.3%)하고 있으며, 주택유형에 있어서도 주상복합아파트의 비율이 12.6%로 다른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사작업공간 위치는 뒷베란다(49.5%)-부엌(24.3%)로 나타났으며, 욕조형태를 선호하고, 필요공간은 서재(28.6%)-취미/운동실(23.4%)-기타(22.1%)순으로 부수적인 α공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요구가 많았다.

군집4 ‘외향적 유행추구형’은 거실 다음으로 부엌에 대한 중요성과 규모에 대한 요구가 컸다. 위치에 대한 우선순위는 거실-자녀실-안방, 독립성의 우선순위는 안방-안방/서재/부부욕실-서재 순으로 부부중심 각각의 사적공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작업공간의 위치는 뒷베란다(43.3%)-부엌(20.5%) 순으로 나타났고, 필요공간은 다른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달리 취미/운동실(29.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이 주거의식과 주거요구의 측면에서 본 주거양식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며 특히 주거공간에 대한 가치와 태도에 대한 주거의식 측면에서 본 주거양식은 크게 거실-부엌중심형과 거실-자녀실중심형,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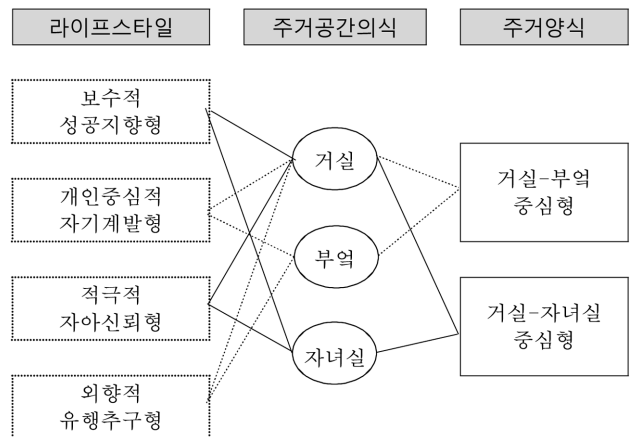


그림 1.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주거양식

9)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공동체마을 등을 포함  
 10) 욕조와 샤워부스 겸용, 화장대 겸용, 반욕조 형태 등  
 11) 드레스룸, 수납공간, 다용도 베란다(작은정원, 건조공간, 장독대, 물놀이공간 등), 놀이방, 손님접대룸 등  
 12) 가사작업공간 유형은 모든 가사작업(세탁, 건조, 다리질, 바느질 등)이 한 공간에 배치하는 ‘통합형’, 별도의 공간에 배치되는 ‘분리형’으로 나누었다.  
 13) 강지혜(2008)의 논문에서는 희망주택유형에서 단독주택의 비율이 집단별 11.9~14.1%로 나타났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장년층 기혼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고 그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나타내는 주거의식과 물리적 측면에서의 주거요구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주거양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중·장년층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 7개의 요인을 추출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근거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보수적 성공지향형(24.1%), 개인중심적 자기개발형(24.1%), 적극적 자아신뢰형(19.5%), 외향적 유행추구형(32.4%)의 네 개의 집단을 도출하였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특성에 따른 주거양식을 살펴보면, “보수적 성공지향형”은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고 출세지향적인 반면,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유행에 민감하지 않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 유형으로 거실공간 다음으로는 자녀실에 대한 위치와 규모를 중시하고 있었다. 또한 부부중심의 사적공간을 중시하고 필요공간은 서재-A/V룸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중심적 자기개발형”은 개성있는 개인적인 삶을 중시하며, 여가 시간을 중시하여 스포츠나 취미 활동에도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유형으로, 서재-취미/운동실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자기개발 공간에 선호도가 높았다. 또한 거실 다음으로 자녀실과 부엌에 대한 중요도가 같았으며 위치에서는 자녀실을, 규모에서는 부엌을 거실다음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다양한 가사작업공간 유형을 선호하고 서재-취미/운동실의  $\alpha$ 공간으로 선호했다.

“적극적 자아신뢰형”은 규범을 중시하기보다는 출세를 위한 성공지향성이 높고 경제적인 삶의 윤택함을 선호하며 자아신뢰도가 높은 유형으로, 다른 유형과 달리 자녀실에 대한 중요성, 위치, 규모, 독립성이 거실다음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50평형 이상의 주택규모를 선호하며 부수적인  $\alpha$ 공간에 대한 다양한 공간형태의 요구가 많았다.

“외향적 유행추구형”은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유행에 민감하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는 유형으로, 거실 다음으로 부엌에 대한 중요성과 규모에 대한 요구가 컸다. 위치에 대한 우선순위는 거실-자녀실-안방, 독립성의 우선순위는 안방-안방/서재/부부욕실-서재 순으로 부부중심 사적공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취미/운동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연구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주거양식은 크게 거실-자녀실중심형과 거실-부엌중심형으로 대별되며  $\alpha$ 공간에 대한 선호도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모든 유형에서 거실은 공적공간, 안방은 사적공간으로 분리되어 기존에 한 공간에서 다기능분화를 이루고 있었던 우리 주거

양식은 변화되어 각 실의 기능분화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공간의 인식변화를 의미한다. 거실에 대한 중요성, 위치, 규모는 모든 유형에서 우선시 되고, 안방은 부부의 사적공간으로서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1960년 이후 거실과 안방의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공간의 중요성, 규모, 위치, 독립성 변인에 대한 주거의식과 주거내의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일부 공간 유형에 대한 선호도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적 표집과 다양한 계층,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주거의식과 세부적인 공간구성 요소에 대한 주거요구가 조사되어 본 연구의 결과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1. 강지혜 (2008). 서울시 및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의식의 유형화와 주거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2. 김동기 (2005). 대학생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텔레비전 프로그램 선호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3. 김미실 · 김미희 (2009).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과 유틸리티스 주거기능 선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 1-10.
4. 김수정 (2006). 공공아파트의 공간구성과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5. 김수현 (1999). 아파트 단위평면의 유형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6. 김태환 (2009). 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휴대폰 추구가치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서울.
7. 박성연 · 최신애 (1999). 경제적 변동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추세연구. 한국마케팅학회논문집, 15(3), 1-18.
8. 박성정 · 김남희 · 이소연 · 김미경 (2005). 중장년층 여성인적자원개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연구보고서, 16, 13-14.
9. 송지준 (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61-82.
10. 심성욱 · 박종민 (2003).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매체 광고 효과 인식에 관한 연구. 광고학회지, 15(2), 7-33.
11. 유영희 (1996).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 한옥 주거양식의 변화 과정. 서울학연구7, 130.
12. 윤정숙 · 김한나 · 신수영 · 강지혜 (2007). 중년층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및 노인주거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4), 9-15.
13. 이미연 (2003). 주생활양식 유형과 거주지역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14. 조전근 · 김화동 (2001).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광고정보탐색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학보, 3(1).
15. Lazer, W. (1963). *Lifestyle Concepts and Marketing, Toward Scientific Marketing*. AMA.
16. 통계청. www.kostat.go.kr

접수일(2010. 5. 28)  
수정일(1차: 2010. 7. 2)  
게재확정일자(2010. 7. 5)